

북한 ‘허풍 방지’ 정책의 문학적 실천 : 단편소설 <푸른잔디>(2022)를 중심으로

전영선 * 한승호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허풍방지법」과 농업에서의 ‘허풍’
 - 2.1 「허풍방지법」 제정 배경
 - 2.2 ‘농업생산’에서의 ‘허풍’
3. ‘허풍 방지’의 문학적 실천 <푸른잔디>
 - 3.1 생산 계획에서의 ‘허풍’
 - 3.2 ‘허풍’과 ‘과학적 타산’
 - 3.3 인민·당·일군 협력의 본보기
4. 결론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 HK교수

** 경동미래전략연구소 남북교류협력팀장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문학』 2022년 9호에 실린 고영민의 단편소설 <푸른잔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푸른잔디>의 주제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허풍’이다. 북한 문학은 노동당 정책을 전달하고 인민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수단이다. <푸른잔디>는 노동당 정책의 문학적 실현으로서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당 대회 사상 처음으로 경제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김정은은 실패의 원인을 계획경제에 맞지 않는 과학적이지 못한 계산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현상을 ‘허풍’으로 규정하였다. 김정은의 비판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2022년 5월에는 김정은의 비판을 반영한 「허풍방지법」이 제정되었다. 2022년 9월에 발표된 <푸른잔디>는 경제 계획과 사업에서 ‘허풍’이 무엇이며, 당 정책을 받드는 관리자의 올바른 사업 태도가 어때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푸른잔디>를 통해서 노동당 정책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실천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북한, 북한 문학, 단편소설 <푸른잔디>, 김정은, 노동당 8차대회, 허풍, 「허풍방지법」

1. 들어가는 말

북한 문학은 노동당 정책을 전달하고 인민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기에 “타인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북한문학은 의문부호투성이다. 모든 해법이 수령과 당의 지시나 지침에 의거해 해명되고 실현되기 때문이다.”¹⁾ 시대를 막론하고, “지도 체제의 목소리를 재생하는 것, 문학이 정치에 종속되는 것” 북한문학의 “본연의 임무”이다.²⁾

후계체제가 시작되면 후계 선전을 위한 서사가 작동하고,³⁾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따른 창작이 이루어진다.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관찰해 나가는 참된 인간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감명 깊게 보여주는 감화력 있고 호소성이 강한 작품, 대중의 심장을 팡팡 울리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⁵⁾하는 것이다.

당 정책과 문학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김성수는 7차 당 대회 이후의 문학적 대응을 “‘당 정책, 생산 독려안- 문예정책- 작가들의 결의- 창작을 통한 생산 독려’라는 6차 당 대회의 프레임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한다.⁶⁾

『조선문학』 2022년 9호에 실린 고영민의 단편소설 <푸른잔디>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농업에서의 허풍’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⁷⁾ 당 정책을 반영하는 북한 문학의 본질을

- 1) 오태호, 「북한에도 작가가 존재한다 - 북한의 등단, 작가, 조직, 문학 이해하기」, 『내일을 여는 작가』75, 한국작가회의, 2019, 38면.
- 2) 남원진, 「이북문학의 정치적 종속화에 관한 연구: ‘중자’와 ‘대작’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제17권 1호, 통일연구원, 2008, 258면.
- 3) 이지순, 「북한 서사시의 김정은 후계 선전 양상」, 『북한연구학회보』제16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2, 218면.
- 4) 오삼언, 「김정은 시대 소설에 반영된 농업 및 과학기술 정책과 변화된 일상 - 「목화숨이불」, 「버드나무 설레이는 땅」 등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22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8, 145-169면.
- 5) 오삼언, 「북한의 지도자 형상화와 기억정치 - 『영생』과 『야전렬차』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1면.
- 6) 김성수, 「당(黨)문학의 전통과 7차 당 대회 전후의 북한문학 비판」, 『상허학보』 49집, 상허학회, 2017, 400면.

보여준다.

단편소설 <푸른잔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허풍방지법」이다. 「허풍방지법」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지적한 ‘허풍’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5월에 제정한 법이다. 「허풍방지법」의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 조항은 2022년 9월에 발표한 소설 <푸른잔디>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정리하자면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허풍’에 대해 비판하였다. 허풍 방지에 대한 강조는 이후에 열린 제8기 제2차 전원회의(2021년 2월), 제8기 제3차 전원회의(2021년 6월)에서도 거듭 강조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2022년 5월에 「허풍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22년 9월에 ‘허풍’의 구체적인 사례를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푸른 잔디>가 발표된 것이다.

단편소설 <푸른잔디>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1년 1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였다. 노동당 제8차 대회는 2019년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김정은의 영도력이 손상되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개회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이었다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인정하였다.⁸⁾

김정은은 정책 실패를 과학적이지 못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리 감독해야 할 내각에서도 과학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은 계획경제의 기본이 되는 ‘타산’을 바로 세우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하였다.⁹⁾ ‘허풍’에 대한 비판과 과학적 계획은 노동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허풍방지법(이하 허풍방지법)」을 제정하였다.

7) 고영민, 단편소설 <푸른잔디>, 『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3쪽 : “당중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다.” 이하에서는 소설의 페이지만 밝힘.

8)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 1. 6.

9)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 1. 6.

<푸른잔디>에는 ‘농업에서의 허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당에서 요구한 ‘알곡 증산을 위한 과학 농사’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 지가 담겨 있다. 문학적인 한계도 분명하다. 작품을 내면으로 소화하고, 심리를 반영하는 디테일도 부족하고, ‘허풍’의 문제를 지적하는 지문은 법 조항을 읊조리는 듯한 지문은 가다듬어지지 않았다. 이런 장면은 2019년 이후의 북한 문학에서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당의 이런저런 정책을 문학이라는 결과로 반영해야 하는 작가의 현실, 북한 문학의 현실을 보여준다.

2. 「허풍방지법」과 농업에서의 ‘허풍’

2.1 「허풍방지법」 제정 배경

북한에서 ‘허풍’이라는 말은 과장되기는 하지만 법과 직접 연관된 말은 아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보태거나 꾸며서 말하다”¹⁰⁾ 또는 “① 사실과 맞지 않게 보태거나 꾸며서 실속 없이 하는 행동이나 말, ② 아첨과 공명심에서 출발하여 사업에서의 성과는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성과가 큰 것처럼 과장하여 떠드는 것”¹¹⁾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꾸미거나 보탠다는 의미, 성과를 부풀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사전에서도 ‘허풍’의 용례로 “허풍을 치는 병집을 뿌리 뽑다”, “허풍떠는 버릇을 떼다”¹²⁾를 제시한다. 고치거나 뿌리뽑아야 할 잘못된 버릇이나 허위라는 의미가 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범죄적인 용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로 ‘허풍’의 의미는 달라졌다. 허풍은 북한 경제를 좀먹는 범죄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노동당 제8차대회는 2020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소집이 결정되었다. 노동당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 「조

10) “허풍”, 『조선말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935면.

11) “허풍”, 『조선문화어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 816면.

12) “허풍”, 『조선말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935면.

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에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¹³⁾고 하였다.

노동당 제8차 대회는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총화하고, 극복 방안을 위한 대회였다. 정책 실패를 인정한 김정은은 결함의 원인을 주관에서 찾았다. 즉,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하였다.¹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은 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로 이어졌다.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심화하기 위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8차대회 직후인 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¹⁵⁾ 전원회의에서는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법제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수행의 걸림돌로 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며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일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문법들을 제정완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¹⁶⁾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의 걸림돌로 지목된 것은 ‘허풍’이었다. 보고와 계획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어서,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풍’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인 사업 태도, 사업방식’이라는 의미로 각종 회의에서 배척해야 할 사업방식, 사업 태도로 지목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로 경제 수립, 사회 전반의 허풍, 농업에서의 허풍을 처벌하는

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2020. 8. 20.

14)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 1. 6.

15) 최은주, 「조선로동당 제8차 제2기 전원 회의의 평가」, 『세종논평』2021-05, 세종연구소, 2021. 2. 15. 1면.

1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의 3일회의의 진행”, 『로동신문』, 2021. 2. 11.

조항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허풍방지법(이하 허풍방지법)」이 제정되었다.

2.2 ‘농업생산’에서의 ‘허풍’

「허풍방지법」은 북한 사회에 만연한 관행화된 ‘허풍’을 바로 잡기 위한 법이다.¹⁷⁾ 3조 ‘허풍방지의 기본 원칙’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허풍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자기부문, 자기 단위실태에 대하여 국가적립장에서 정확히 보고하는것을 혁명규률로 간주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허풍 현상의 심각하다는 것은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에서 확인된다.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¹⁸⁾

제1조 「허풍방지법」의 사명(목적)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허풍을 치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투쟁을 강하게 벌려”라는 어휘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¹⁹⁾

「허풍방지법」에서 <푸른잔디>와 연결되는 것은 「허풍방지법」의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이다.²⁰⁾ 북한에서 농업은 ‘고난의 행군’

17) 「허풍방지법」은 허풍의 개념부터 당의 지도통제까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허풍방지법의 기본’, 제2장 ‘경제계산에서의 허풍방지’, 제3장 ‘농업생산에서의 허풍방지’, 제4장 ‘사회전반에서의 허풍방지’, 제5장 ‘허풍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허풍을 방지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정하였다.

18) 5개 조는 제1조 (허풍방지법의 사명), 제2조 (허풍의 정의), 제3조 (허풍방지의 기본원칙), 제4조 (허풍행위에 대한 처벌원칙), 제5조 (해당 범규의 적용)이다.

19)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투쟁은 과감히 혹은 힘있게, 활발히 등과 함께 쓰인다. 투쟁을 강하게 벌려나야간다는 문구는 최고지도자 혹은 당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 당국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미신 등과 관련해서 투쟁을 강하게 벌려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홍국기, “북한서 미신 만연...돈 조각상·신수풀이 사진 나돌아” 『연합뉴스』, 2016. 10. 30.

20) 제3장은 12조에서 20조까지 총 9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2조 (농업생산에서 허풍방지의 기본요구), 제13조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서의 허풍방지), 제14

이후 경제정책에서 우선 달성해야하는 ‘주공전선’의 하나이다. 농업의 핵심은 식량, 즉 ‘알곡 생산’이다.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을 통해 식량문제가 체제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허풍방지법」에서는 경제계산에서의 허풍 척결과 비교해 농업생산에서의 허풍 척결은 더욱 강한 어조를 쓰고 있다. “농업생산에서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요구”라면서, 북한에서 농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에서의 허풍 척결을 명시하였다.

3. ‘허풍 방지’의 문학적 실천 <푸른잔디>

3.1 생산 계획에서의 ‘허풍’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허풍’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고, 2022년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현장에서의 체감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고, 새로운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영민의 <푸른잔디>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소재로 ‘허풍’이 무엇이고, 관리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에서 문학의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보여준다.

<푸른잔디>는 농업대학 농기계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고향에서 관리위원회 설비부원이 된 동식의 정신적 성장을 주제로 한 소설이다. 동식은 기계화된 문화농촌을 꿈꾸고,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허풍’치는 일꾼으로 찍힌다.

동식이 ‘허풍’을 쳤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양수기 때문이었다. 동식

조 (영농준비사업에서의 허풍방지), 제15조 (영농작업수행에서의 허풍방지), 제16조 (농작물예상수확고관정에서의 허풍방지), 제17조 (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에서의 허풍방지), 제18조 (농업생산물수매계획수행에서의 허풍방지), 제19조 (농업토지리용에서의 허풍방지), 제20조 (농업부문에서 허풍방지를 위한 과학기술도입)이다.

이 관리하는 양수기는 농촌 수리화 기계화의 상징이다. <푸른잔디>의 창작 계기가 된 노동당 제8차 대회는 대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열렸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0년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식량 상황도 좋지 않았다. 악화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제7차 대회에서 세운 목표는 실패하였다. 김정은도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²¹⁾라고 인정하였다.

김정은은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²²⁾하다면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절박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며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를 실현”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²³⁾

노동당 제8차대회에 이어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에서는 노동당 제8차대회의 결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보고되었다. 농업의 중심은 알곡 생산이었다. “내각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겠습니다. 내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부문] 에서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농업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것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들어쥐고나가”면서,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장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과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겠다고 보고하였다.²⁴⁾

동식도 당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농업대학 농기계학부

21)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 1. 6.

22)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 1. 6.

2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부문별협의회 진행”, 『로동신문』, 2021. 1. 12.

24)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로동신문』, 2021. 1. 18.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고향에서 기계화된 문화농촌을 꿈꾸었다. 동식은 “중전의 모내기계를 새 농법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 군에서도 앞선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나름대로 당의 방침을 받은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동식은 3호 양수기 문제로 ‘허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식이 일하는 농장은 “동해로 흘러드는 덕지강과 량강의 합수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른 곳보다 지대가 낮아 장마철에는 많은 물이 흘러들었다. 흘러내리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양수기가 필수였다. 양수기는 모내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장비였다. 문제는 3호 양수기의 베어링이 몹시 낡았고, 새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식은 “베어링이 파괴적닢음상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직은 더 쓸수 있”(66)을 것 같았다. 우선 조립하여 당장에 급한 모내기에 사용하고, 그 사이에 베어링을 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양수기 관리공인 수연이 막아서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리저리 베어링을 들고 살펴보니 얼마동안은 더 쓸 수 있을것같았다. 곁에서 내 생각을 넘겨짚은 수연이가 침을 놓았다.

《그 베어링을 조립하면 한달도 못가서 교체해야 할겁니다.》

《적기를 놓치면 다수확을 할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

《그렇다고 수명이 다된 부속을 맞출수야 없지 않습니까. 부원동지,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방도가 있소》

《아직은...》

아연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제 어디 가서 귀한 부속을 구하겠는가.²⁵⁾

동식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안 된다’고 나서는 수연이 답답했다. 동식은 수연의 반대를 뿌리치고, “당장 새 부속을 구할수 있다는 담보가 없는 조건에서 먼저 바쁜 대목부터 넘기고보자고 생각했다. 낡은 부속을 쓰는 동안 새 부속을 구하리라 생각하며...”(67) 낡은 베어링을 조립한다. 그러나 “양수기부속을 구하는 일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25)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66면.

엮친데 덮친 격으로 개조한 모내는 기계들이 말뚝을 일으키는 바람에
균적으로 앞선 순위에 있던 모내기실적이 갑자기 하강선을 긋기 시작
했다”(67)

이 일로 동식은 관리위원장에게 “어떻게 그런 허풍을 칠수 있는가
말이요”(67)라는 비판을 받는다. 동식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허풍’
이 아니라며 부정한다.

허풍이라니?! 과연 그것을 허풍이라고 할가. 아니, 그것은 허풍이 아니다. 사
업과정에 있을 수 있는 오유에 불과하다. 비판은 발전의 무기라지만 선 듯 받아
들일 수 없었다.

아직도 나는 나타난 결함이 허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까지
허풍이라는 감투를 씌울줄은...

《설비부원이 된지 언제인데 벌써부터 허풍이나? 그래도 뭔가 일을 좀 하는
가 했더니 그따위짓을 하며 돌아쳐?》²⁶⁾

동식은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성과에 급급해 ‘낮은 베어링’을 조립하
였다. 우선 모내기가 급하다고 한 달이면 고장날 베어링을 조립한 것이
였다. 동식은 ‘허풍’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허풍이 아니’라고
거부하지만 아버지 역시 동식을 ‘허풍’이라고 비판하였다.

관리위원장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정말 중요한 홍수 때 낭패
를 당할 수 있었다. 관리위원장과 동식의 아버지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
하여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허풍’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문제는 「허풍방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계획에서의 허풍’과 관련
된다. 「허풍방지법」의 계기가 된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와 노동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의 문제도 ‘잘못된 계획, 거짓된 계획’이었다. 다
행히 관리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연이 베어링을 구하면서 해결
되었지만 동식의 결정은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

동식은 ‘낮은 베어링’을 조립하면서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없었다.
동식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읍에 갔던 길에 관개관리소 소장
도 만났다. “가을에 가서 툭툭히 인사를 하겠다”(69)고 하였지만 관개

26)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67면.

관리소 소장은 “《외상으로든 소도 잡아먹는다더니...》 하며 어이없는 듯 선하품을 하고는 돌아”(69)였다. 관개관리소에서는 동식의 말은 들은채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식이 한 달도 못가서 고장날 배아령으로 양수기를 조립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동식의 말은 들은 채도 않았던 관개관리소에서 수연에게 배아령을 주면서 마무리 되었다. 동식으로서 “그런 구두쇠가 사정을 이야기하니 내주더라는것이 도무지 리해되지 않았”(69)다. 하지만 수연이 구한 배어령으로 무사히 3호 양수기를 수리할 수 있었다. 이 일로 배어령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관리위원장과 동식의 아버지가 동식을 ‘허풍’이라고 비판한 것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무계획에 대한 비판이었다. 한 달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양수기를 조립한 것은 무계획의 전형적인 사업태였다. 자칫 ‘큰물(홍수)’라도 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닥칠 수 있었다.²⁷⁾

김정은은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농업 부문의 뿌리 깊은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언급하였다.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사조건이 불리하고 국가적으로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알곡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놓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하였다.”²⁸⁾ 고 비판하였다. 기존의 관성적인 높은 수준의 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비상 방역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였다.

27) 고영민의 소설 <푸른잔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물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매우 크다. 큰물피해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큰물예보를 강화하고 언제 및 갑문건설, 대형양수장건설, 감시체계수립, 강하천정리를 비롯하여 피해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토지의 불합리한 리용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는 “[상식] 재해성기상현상 - 큰물”을 실어 소설의 의미를 보완하였다. 『조선문학 2022년 9호』(루계 89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9면.

2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1. 2. 12.

3.2 ‘허풍’과 ‘과학적 타산’

동식과 수연의 두 번째 갈등은 ‘가물막이’와 ‘큰물막이’ 계획 문제였다. 베어링 사건이 마무리 된 ‘가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조직하였다. 동식은 열심히 기계를 정비하고, 설치한 노력으로 ‘가물막이’ 실적이 군에서 가장 앞서 나갔다.

그렇게 농장에서는 가물막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수연이 큰물막이를 해야 한다면서, 가물막이에 나선 인원을 빼서 3호 양수기장 물길 정리에 동원하였다. 소식을 들은 관리부위원장이 나서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가물막이에 총집중하라고 지시”(70)하였다. 관리부위원장의 조치에 수연이 막아섰다.

《매일 진행한 가물막이실적을 군에 보고하는데 오늘은 큰물막이대책을 세웠다고 보고하란거냐? 모두 웃겠다.》

《부위원장동지, 5작업반이야 가물보다 큰물때문에 농사를 망쳐오지 않았어요? 가물뒤에 큰물이 진다는거야 누구나 아는 일인데 미리...》

《지금 온 나라가 가물막이로 끓는데 웬 큰물타령이냐? 차라리 이런 때 큰물이라도 났으면 하는것이 내 심정이다.》

《그러지 말고 가물 때 수로보수를 하자요. 봄에도 해마다 하는 일이라고 흘러내린 흙이나 가서내는 식으로 하다보니 불비한 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반장동지는 그래서 두눈을 꼭 감고 로력을 동원시켜주지 않았나요.》

수연은 관리부위원장의 팔에 매달리며 애원하다시피 했다. 부위원장은 《그만해라!》하며 수연의 팔을 뿌리치고 《곱다곱하니까 정말...》하고 짜증을 냈다.

내가 듣기에도 수연의 발은 귀에 거슬렀다.

봄에 이 수로에 대한 보수는 관리부위원장이 책임지고 한 일이었다.

나도 보고만 있을수 없어 부위원장의 편역을 들었다.

《수연동무, 모두 가물막이를 하고있는 때 동무만이 큰물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본위주의라고 보요. 농장전반을 생각해야지.》

《그러니 제가...》

대레초 이런 말에는 언변이 능한 사람이라도 혀가 굳어지는 법이다.

수연이도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해서 나를 바라보았다.²⁹⁾

관리부위원장은 지금은 온 나라가 가물막이에 나서고 있고, 하루하루 가물막이 실적을 군에 보고하는데, 갑자기 큰물막이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하면 모두가 웃지 않겠느냐면서 수연을 설득하였다. 하지만 수연의 의견은 달랐다. 수연은 가물 뒤에 큰물이 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작업반의 농사는 가물보다는 큰물 때문에 망쳤다는 것이다. 강둑을 보수할 곳도 많은 데, 해마다 하는 일은 수로로 흘러내린 흙이나 치우는 정도로 그쳤다는 것이다. 이 번에는 단단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동식은 관리부위원장 편을 들었다. 모두가 가물막이를 하고 있는데, 혼자 큰물걱정을 하는 것은 본위주의라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동식은 아버지에게 수연과 부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동식은 아버지가 자기를 편들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연인 옳은 말을 했다.”(71)면서 수연이 편을 들었다. 동식은 아버지가 야속했다. 우선 가물막이 대책을 세우고, 또 큰물막이 대책을 세우면 되는 문제인데, 한 사코 수연의 편을 드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동식의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아 달라졌다. 수연과 관리위원장의 갈등이 있던 지 며칠 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소식이 전해졌다. 전원회의에서는 “재해성이상기후현상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과 국토를 보호하는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73)라고 하면서, “국토관리사업을 꾸준히 진행할데 대한 전원회의사상”(73)이 전달되었다. 농장에서는 결정을 받들어 ‘3호양수장의 수로에 대한 정리사업’이 시작되었다. 동식은 수로보수의 총책임이 주어졌다. 동식은 누구보다 열심히 수로보수를 하였다.

수로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동식은 수연의 진실된 면모를 보게 된다. 수연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잔디’였다.

《지금 뭘하오?》

《잔디를 떠웁겨요. 이렇게 마구 흙을 덮어놓으면 잔디가 죽거든요.》

수연은 제방우에 퍼올린 흙속에 묻힌 잔디를 떠내고있었다. 그는 팔굽으로 이

29)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0~71면.

마에 송골송골 내뺨 땀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저기 5작업반이 맡은 구간에 잔디가 없다보니 제방의 흙이 흘러내려 이렇게 수로에 흙이 쌓이지 않아요.》

순간 예리하고 날카로운것이 금선을 그으며 훑어내렸다. 사실 봄에도 수로보수를 진행했었다. 헌데 모내기며 가물막이때 잔디를 입히지 않은 구간의 흙이 다시 수로로 흘러내려 쌓였던것이다.

이런 단순한것을 나는 왜서 보지 못했는지.³⁰⁾

소설 제목인 <푸른잔디>의 숨겨진 의미가 드러난다. 소설은 말미에 이를 때까지 잔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농업과 잔디가 연결되는 고리는 숨겨진 고리였다. 알곡 생산과 직결되는 큰물막이를 위해서 잔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수연의 진심이 잔디로 드러나는 것이다. 동식은 처음 수연이 “네댓평 되나마나하게 일군 땅”(65)에 잔디씨를 뿌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동식은 “밭을 얼마나 여물지게 손질해놓았는지 잔돌 하나 없었다. 이런 좋은 땅에 잔디를 심는 것을 보니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차리리 들깨와 같은 공예작물을 심든가 아니면...》”(66)라고 하였던 것이다. 해마다 큰물막이를 한다고 농수로의 흙을 치웠지만 소용이 없었다. 비가 오면 흙이 다시 흘러내려 수로를 막았다. “사실 봄에도 수로보수를 진행했었다. 헌데 모내기며 가물막이때 잔디를 입히지 않은 구간의 흙이 다시 수로로 흘러내려 쌓였던것”이었다. 동식은 “이런 단순한것을 나는 왜서 보지 못했는지” 크게 반성한다.

반성하는 동식에게 수연이 다시 깨우쳐준다. 비상 상황을 대비한 양수기 가동 문제였다.

《저... 전에 제가 말하던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무슨 문제 말이요?》

《디젤기관으로 양수기동력을 보장하는 문제 말이예요.》

사실 그 문제는 큰 것을 생각해보라는 말을 듣고 얼마전 수연이가 제기한 문제였다. 처음에는 기발한 착상이라고 생각했다.³¹⁾

30)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3면.

동식은 수연이 제기한 문제를 기발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관리부위원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장마철에 전기가 못들어온다고 해도 걱정이 없지. 현대 아무래도 자금이, 자금이 문제야》”라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동식의 말을 들은 수연은 동식이 ‘허풍을 쳤다’고 말한다.

《전 부원동지에게 의견이 있어요. 솔직히 부원동지가 이 땅을 기계화가 실현된 문화농촌으로 꾸리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그래서 더 믿었어요. 설비부원동지가 모두가 바라는대로 농장의 기둥이 되리라 믿었고 이 땅을 떠받드는 거목이 되리라 믿었던 말이에요. 현대 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런 허풍을 칠줄은…》³²⁾

동식은 관리부위원장을 믿고 있었다. ‘경험이 풍부하고 로련한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존경했다. 디젤기관으로 양수기를 가동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도, 관리부위원장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었다. 수연의 말을 동식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농촌 현대화를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제대로 된 일이 아니었다. 앞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허풍이나 치는 일꾼’이었던 것이었다.

김정은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알곡생산이 계획에 미달한 원인으로 농업 부문의 허풍을 지적하였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이어 열린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제3차 전원회에서도 김정은은 농업에서의 ‘허풍’이 심하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2021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농업 부문의 뿌리 깊이 배겨있는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면서 ‘허풍’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당창건 기념일 행사에서 강연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김정은이 문제로 지적한 ‘허풍’은 북한에서 허풍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사회

31)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4면.

32)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4면.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단호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식량문제와 직결된 농업 문제를 북한 체제의 안위(安危)와 직결되는 우선 과제인데,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극복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한 것이다.

3.3 인민·당·일군 협력의 본보기

동식이 새로운 일군으로 거듭나게 일깨워주는 인물은 수연과 리당비서이다. 이들은 각각 농업 현장의 ‘인민’과 ‘당의 지도’를 살징하는 인물이다. 수연은 처음 농촌 현대화를 위해 일하겠다는 동식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해를 앞 세우는 동식을 보면서 실망하였다. “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런 허풍을 칠줄은...”(74) 몰랐다면 눈물을 보였다. 수연은 동식이 참 일군으로 거듭날 때까지 당이 목표로 한 ‘알곡 생산’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다. 당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동식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당 정책을 만드는 수연의 ‘소행’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진정한 일군이라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지를 반성하게 된다. 동식은 마침내 자신을 돌아보고, “저 하나의 공명을 위해서 서슴없이 허풍을 치게”(72)되었다고 인정하고, 반성한다. 진정으로 농촌을 받는 수연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행동이 공명심에서 나온 ‘허풍’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동식은 새로운 일군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디젤기관으로 양수기 동력을 보장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은 며칠 후였다. “센바람을 동반한 많은 량의 비가 우리 고장에 내린다는 일기예보소식”(75)이 왔고, “관리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의회에 참가하라는 지시”(75)가 떨어졌다.

대책을 발표한 것은 관리부위원장이었다. 관리부위원장은 “오늘 재해성이상기후현상은 세계적인 난문제”라면서, “재해성이상기후영향으로 피해를 받은 여러 나라들까지 꺼들며 장황하게 사실을 늘어놓았다.”(75). 정작 중요한 새로운 대책은 없었다. “지난날 태풍8호와 10호

가 지날 때”도 제출했었을 것 같은 “너무도 구태의연하고 판에 박힌”(75) 대책을 토론하였다.

부위원장의 토론은 너무도 구태의연하고 판에 박힌 것이었다.

아마 지난날 태풍8호와 10호가 지날 때도 저 계획서를 제출했고 저 계획서대로 대처했는지도 몰랐다.

...(중략)...

너무도 판에 막히고 구태의연한 계획서!

과연 이것이 진심으로 농사를 걱정하는 일군의 사고관점이란 말인가.

진심으로 농사를 걱정하고 고향을 걱정했다라면 그날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는가. 수로보수를 한사코 반대하던 사람, 그가 오늘은 수로보수와 양수설비를 비롯한 배수체계의 점검 및 정비에 대하여 말하다니?!...³³⁾

동식은 관리부위원장의 대책을 보면서, ‘올바른 사업 일군이었는지’를 돌아본다. 마침내 존경했던 관리부위원장을 비판한다.

《전 부위원장동지에게 의견이 있습니다.》

회의장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다. 나는 숨김없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터놓았다.

《솔직히 이자 부위원장동지가 말한 모든 것은 이미 진행한 사업이거나 또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배수로보수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부위원장동지나 제가 반대했던 문제이구요.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심중히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에게 묻고싶었다.

우와 아래를 맞추고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혁신 없이 구태의연한 계획서를 들고 자리지킴이나 하려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고.

그것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자리지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고...³⁴⁾

동식의 비판은 관리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었고, “이는 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처럼 일해온 일군들에게 하는

33)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5면.

34)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6면.

웨침이었다.”(76) 관리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자신의 사업이 ‘허풍’이었다는 통렬한 자아비판으로 이어졌다.

3호양수기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설비부원동무는 그것이 허풍이 아니라고 할 테지만 전 그것이 허풍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까지도 속이는 거짓보고가 점차 보다 더 큰 허풍을 낳고 나중에는 당에 허위보고까지 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일군들속에서 허풍이 나타나고있는데 허풍은 공명심을 위해서도 하게 되며 또 아무 일도 하는것 없이 명색상 자리지킴을 하자니 하게 됩니다.³⁵⁾

동식의 발언을 확증한 것은 리당비서였다. 리당비서는 “설비부원동무는 그것이 허풍이 아니라고 할테지만 전 그것이 허풍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76), “그런 일군은 저도 모르게 허풍을 치게”(77)된다고 하였다.

<푸른 잔디>의 계기가 된 김정은의 비판으로 돌아가 보자. 노동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첫날 김정은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강령적인 보고”를 하였다. 김정은은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세우는 과정에 발효시킨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신랄히 지적”하였다.³⁶⁾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이 되어야 할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졌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어떤 부문의 계획은 현실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높여놓고 어떤 부문들에서는 정비보강의 미명하에 능히 할수 있고 반드시 하여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춰 세우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³⁷⁾

비판을 끝낸 동식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새롭게 수립한 계획을 제출하였다. 동식이 제출한 “많은 자료에 기초하여 면밀하게 타산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한 계획서”(76)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렀다. “폭우가 내려도 능히 큰물피해를 막을수 있”고, “전력이 두

35)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6면.

3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소집”, 『로동신문』, 2021. 2. 9.

3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1. 2. 12.

절되는 경우에 디젤기관으로 양수기를 가동할” 방도도 들어 있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식의 새로운 계획을 ‘쾌히 접수’하였다.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이 지적한 “어떤 부문의 계획은 현실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높여놓고”라고 비판한 분야는 농업이었다. 다른 분야는 할 수 있는 계획보다 낮추어 잡는 반면, 농업에서는 생산계획을 높여 잡는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연말 결산 때,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 계획보다 실적이 높고, 농업은 목표보다 낮다는 것이다. 농업이 생산 계획을 높여 잡는 것은 실제 생산이 실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부위원장처럼 생산을 하려고 했지만 재해성 기후로 인해 목표에도달하지 못해도 맞출 수 없기 때문이었다. 김정은이 지적한 ‘허풍’은 이런 계획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리당비서는 당의 뜻을 결론지어 말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 사람들은 자연지리적조건이 농사를 짓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농사가 안되는 것을 자연지리적조건에 빙자하면 안된다고 하시며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습니다. …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일해오지 않았는지 또 자리지킴이나 해온 그런 일은 없는지. 명심하십시오, 그런 일군은 저도 모르게 허풍을 치게 되며 이는 당과 국가의 리익을 해치는 엄중한 범죄로 된다는 것을!”(77)

<푸른 잔디>의 결말은 과학적인 대책의 승리로 끝난다. 재해성 이상 기후로 큰 비가 내리고, 거센 폭우가 수로로 밀려왔다. 하지만 3호 양수기는 긴급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큰물을 막아냈다. 북한 문학의 낙관적인 결말을 답습하는 것은 북한 문학의 클리셰이다. 노동당의 정책을 종자로 한 문학이기에 본보기적 승리를 보여주어야 하는 예고된 결말이었다. <푸른 잔디>는 그렇게 농업에서의 과학적인 계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기계적인 구성으로 보여준다.

5. 결론

<푸른잔디>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강도 높게 지적하였던 ‘허풍’적인 사업 태도를 비판하고, 과학적 계산에 근거한 계획 수립의 요구를 문학적으로 충실하게 반영한 작품이다.

당 정책의 반영은 북한 문학의 기본 사명이다. 새로운 노동당의 정책이 결정되면,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언론을 통해 당정책의 의미를 해설한다. 현장에서는 선전화, 노래 등을 한 문화사업이 진행된다.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한 문학작품도 창작된다. 개요의 한 장르로 당정책을 주제로 한 ‘당정책가요’가 별도의 장르로 규정되어 있다. <푸른잔디>는 당정책의 의미를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문학적으로 실천한 본보기 작품이다.

<푸른잔디>의 ‘중자’인 ‘허풍’이 비사회주의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의미로 각인된 것은 2021년 1월에 열린 노동당 제8차대회이다. 김정은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깊이 있는 분석 총화를 통해 과학적인 목표 투쟁 과업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³⁸⁾ 김정은은 과학적인 못한 사업 태도와 관리 감독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우선으로 자기 부문과 자기 단위의 실패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은의 요구는 2021년에 열린 노동당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그리고 2022년 5월 「허풍 방지법」 제정에 이르렀다.³⁹⁾

38)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 1. 6.

39) 2022년 5월에 제정한 「허풍방지법」은 허풍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재규정하고,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허풍방지법」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풍방지법」과 관련한 연구로는 임상순 외,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북한의 이해』(박영사, 2024)에서 김일환이 집필한 “chapter04 농업과 식량: 북한의 식량난은 어떤가요?”에서 「허풍방지법」을 농업생산량과 통계관리에 대한 통제법으로 소개하였다. 「허풍방지법」이 제정된 것이 2022년으로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허풍’의 정의와 기본 사명(제1장)부터 경제 수치(제2자), 농업 생산(제3장), 사회 전반의 허풍 방지(제4장), 허풍방지 사업 통제(제5조)를 규정하고 있다. 허풍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특정한 어느 한 분야에서 분석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푸른잔디>에서 사업일군 동식의 행위는 김정은이 지적한 ‘허풍’의 본보기였다. 나름 열심히 일하는 사업일군이었지만 꼼꼼히 타산하지 못하는 낡은 사업 방식에 젖어있는 인물이다. 동식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난 동식은 당이 요구하는 애국자이자 모범일군의 전형이다.

<푸른 잔디>의 주인공은 동식이다. 하지만 동식을 진정한 일꾼으로 이끄는 이는 수연이다. 동식은 ‘기계화가 실현된 문화농촌’을 꿈꾸며 고향으로 내려왔고,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자기 공명심을 위한 ‘허풍’이었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허풍’이었다. 동식이 진정한 일꾼으로 깨우치기까지 헌신한 수연이 숨은 영웅이었다.

“진심으로 나라의 식량문제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자”(79)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촌을 지키는 수연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였다. 어떻게 하면 농촌을 지키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농장에서 다수확을 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72)라면서, 총비서의 뜻을 받드는 수연은 총비서가 원하는 진정한 애국자였다. 관개관리소장이 배아령을 준 것도 수연 때문이었다. 수연이 “한푼두푼 모아 힘들게 마련한 레장감을 수연이가 한마디 말도 없이 특류영예군인에게 시집을 가는 관개관리소 처녀에게”(72) 주었고, 수연의 행동에 감동한 관개관리소장이 내놓은 것이었다.

농장 사람들이 ‘가물막이’에 나서고 있을 때, 혼자 ‘큰물막이’를 해야 한다면서, 가물막이에 나선 인원을 빼서 3호 양수기장 물길 정리에 동원한 것도 가물막이에 이어질 큰물막이를 예견한 것이었다.

당의 방침을 받들고자 하는 진정한 애국자인 수연이 있었기에 동식의 각성이 있을 수 있었다. “나도 수연의 마음을 몰랐더라면 오늘 토론은 지난날처럼 형식적으로 하였을것이고 피해를 입어도 그것이 우리 일군들의 잘못이 아니라 태풍이나 큰물과 같은 그 어떤 객관적인 조건으로 초래된 후과라고 당에 허위보고를 했을 것이다.”⁴⁰⁾라는 동식의 자아비판과 과학적 계산에 근거한 계획서 작성도 가능하였다.

수연은 눈앞에 닥친 일을 하면서도 앞날을 계획하였다. 수연이 애써

40) 고영민, <푸른 잔디>『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76면.

일군 땅에 곡식을 심지 않고, 잔디를 심은 것은 큰물이 났을 때 제방에 쌓아둔 흙이 다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다. 평소 무엇이 문제인지를 관찰하고,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소설 제목인 ‘푸른잔디’는 거센 큰물을 막는 제방에 단단히 뿌리내린 살아 있는 잔디, 생명이 있는 잔디를 상징한다. “조국의 크고작은 언제들과 제방들마다에는 푸른 잔디가 있어 사나운 태풍에도, 차디찬 눈보라에도 끄떡없이 천년언제로 서있는것처럼 말없이 이 땅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조국의 부강을 위해 다수확을 안아오고 있다.”(79)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푸른 잔디>에서는 왜 주인공을 ‘수연’으로 하지 않았을까? <푸른 잔디>는 계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소설이다.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지적한 엄정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부원인 동식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이다. 동식을 긍정적인 인물로, 구태의연한 계획으로 자리 보존하는 관리부위원장을 부정적인 인물로 대비한다. 그리고 동식이 진정한 일군으로 거듭나게 하는 인물로 평범한 노동자인 수연으로 설정함으로써, 참된 일군의 자세를 본받도록 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저조하게, 말로만 해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그것을 종식시킬수 없”으며, “그대가를 자기자신과 우리 인민들이 값비싸게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명심”⁴¹⁾해야 한다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설정이다.

노동당 제8차 대회의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에서 ‘이민위천’을 실천하는 관리의 태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구현하는 관료,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명줄처럼 간직하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⁴²⁾ 관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영민의 <푸른 소설>은 김정은이 요구한 관료들의 역할이 “혁명발전의 원동력을 인민대중의 심장속에서 찾”는 것이고, “부닥치는 난국과 정세변화에 대처하여 인민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⁴³⁾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문학적으로 제시한다.

4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1. 2. 12.

42) 백영미, “참된 복무자의 자세”, 『로동신문』, 2024. 8. 13.

43) 본사정치보도반, “제8차대회 4일회의의 진행”, 『로동신문』, 2021. 1. 9.

[Abstract]

Literature Practice of North Korea's 'Prevent Bluffing' Policy: Focusing on Short Story Green Grass (2022)

Jeon, Young sun(Konkuk University)

Han seung ho(Kyungdong Strategy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 Young-min's short story Green Grass, published in the September 2022 issue of the North Korean magazine Joseon Literature. The theme of Green Grass is "bluffing," a behavior that Kim Jong-un strongly criticized at the Eigh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As a representative work that translates Workers' Party policy into literature, Green Grass exemplifie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Kim Jong-un era.

The Eigh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held in January 2021, took place under the worst conditi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Kim Jong-un regime.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Party Congress, it was acknowledged that economic targets had fallen "significantly short." Kim Jong-un attributed the causes of this failure to unscientific calculations that were incompatible with a planned economy, defining this phenomenon as "bluffing" (falsehood and exaggeration). Kim Jong-un's criticism continued thereafter, resulting in the enactment of the "Bluff Prevention Act" in May 2022, reflecting his stance. Green

Grass, published in September 2022, illustrates what “bluffing” entails in economic planning and business, as well as the proper work attitude expected from officials who support Party policy. Through Green Grass, readers can observe how Workers' Party policies are realiz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Key words : North Korea, North Korean literature, short story <Green grass>, Kim Jong-un,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bluff, ‘anti-bluster law’

[참고문헌]

□ 기본자료

고영민, <푸른 잔디>, 『조선문학』 2022년 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 65-79면.

□ 단행본

『조선말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2160면

『조선문화어사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 1060면

□ 논문

김성수, 「당(黨)문학의 전통과 7차 당 대회 전후의 북한문학 비판」, 『상허학보』 49집, 상허학회, 2017.

남원진, 「이북문학의 정치적 종속화에 관한 연구: ‘종자’와 ‘대작’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통일연구원, 2008.

오삼언, 「김정은 시대 소설에 반영된 농업 및 과학기술 정책과 변화된 일상 - 「목화숨이불」, 「버드나무 설레이는 땅」 등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2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8.

오삼언, 「북한의 지도자 형상화와 기억정치 - 『영생』과 『야전털차』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오태호, 「북한에도 작가가 존재한다 - 북한의 등단, 작가, 조직, 문학 이해하기」, 『내일을 여는 작가』 75, 한국작가회의, 2019.

이지순, 「북한 서사시의 김정은 후계 선전 양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12.

임상순 외, 『북한법 변화를 통해서 보는 현대북한의 이해』, 박영사, 2024.

최은주, 「조선노동당 제8차 제2기 전원 회의 평가」, 『세종논평』 2021-05, 세종연구소, 2021. 2. 19.

□ 기타 자료

“[상식] 재해성기상현상 - 큰물”, 『조선문학 2022년 9호』(루게 899호), 문학예술출판사, 2022.9.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부문별협의회 진행”, 『로동신문』, 2021. 1. 1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로동신문』, 2021. 1. 18.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
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2020. 8. 2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0. 8. 2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3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1. 2. 11.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소집”, 『로동신문』, 2021. 2. 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1. 2. 12.
- “혁명적 문학예술은 정면돌파전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 『문학신문』, 2020. 2. 8.
-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 1. 6.
- 백영미, “참된 복무자의 자세”, 『로동신문』, 2024. 8. 13.
- 본사정치정보도반, “제8차대회 4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1. 1. 9.
- 홍국기, “북한서 미신 만연…돈 조각상·신수풀이 사진 나돌아”, 『연합뉴스』, 2016. 10. 30.